

전남도, 현장 의견 반영 '장애인 행복시대' 연다

도지체장애인협회와 소통 강화 간담회...제도 개선 과제 청취

전남도는 19일 도청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종택 전담협회장과 시·군 지회장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 복지 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는 지난 7월 협회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후속 소통 자리로,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겪는 불편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주요 장애인 복지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9월 개원을 앞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상황을 소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여가활동, 체육단련, 세미나 등 함께 사용할 '지체장애인 쉼터 설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했다.

또 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추진한 장애인복지관 등을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5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성과와, 전남도 적극행정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실적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협회가 추진 중인 '아름다운 동행' 봉사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에 대해 김종택 전담협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과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협회,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전남협회 소통 간담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PEOPLE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순천시, 도심 속 문화공간 제공 '청춘냉창고 무비데이' 성료

순천시는 최근 청춘창고에서 개최한 '청춘냉(冷)창고 무비데이' 행사가 4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7월 셋째주부터 8월 둘째주까지 5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됐으며, 무더운 여름 시민에게 도심 속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청춘창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프로그램으로는 무료영화 상영, 각종 체험부스 운영, 로컬마켓,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춘창고에 입점한 점포들도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정원단밤'은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는 고객에게 텃밭리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으며, '휘게파스타'는 청춘냉창고 무비데이 행사를 기념해 특별 메뉴를 구성해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담양 천변리 골목길 꾸미기 단장 마을 어르신들 '마을 얼굴'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2025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천변마을 손놀이 마당이 8월에도 이어졌다.

19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천변리 정미소 갤러리를 거점으로 한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이 직접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꾸미는 생활미술 공예 프로그램이다.

이번달에는 '우리마을 그림지도 만들기'와 '골목길 꾸미기'가 진행됐다. 그림지도는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주요 지점을 스케치하고 채색한 뒤, 이를 대형거울에 아크릴로 옮겨 전시하는 공동작업으로 완성됐다.

골목길 꾸미기 활동에서는 담장과 지붕, 화단을 모형으로 재현했다. 담장 아래에 꽃과 나무를 만들며 과거의 장날 풍경과 추억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강성남 담양문화원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손 끝에서 나온 작품들이 마을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서구, 얼굴 없는 '천사' 미래세대 위해 기부

서구장학재단에 5000만원...설립 후 최대 규모

광주 서구에 익명의 독자가로부터 장학금 5000만원이 전달돼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9일 서구에 따르면 최근 80대 한 어르신이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금 5000만원을 익명으로 서구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이선 서구장학재단 설립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28년간 가족과 함께 서구에 거주해 온 익명의 기부자는 고항이자 친정과 같은 서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가족과 상의 끝에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아들·딸과 같은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마을것 꿈을 펼치면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서구장학재단에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금을 지역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박진갑 서구장학재단 이사장은 "평생 모은 재산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마음부자'의 선한 영향력이 '착한서구'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장학금을 통해 성장한 학생들이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뿌리내리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

전남도-암샘김밥, 새창무쌈 소비 촉진 '맞손'

전북·새창무쌈 활용 매뉴 4종 시식회서 소비자 호응

전남도는 19일 암샘김밥 무안오룡점에서 영암군, 암샘 분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새창무쌈 소비촉진 프로모션 시식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전북물결면, 전북개살북음밥, 전북비빔밥, 전북통계날미김밥 등 전북을 활용한 4종 메뉴를 시식하며, 전남 대표 품종인 새창무쌈의 우수한 품질과 맛을 확인했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암샘김밥에 총 130t의 새창무쌈을 공급했으며, 샘풀쌀 제공과 매장 현판(스티커) 제작 등을 지원해 전국 유통망과 연계한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새창무쌈 소비촉진 프로모션의 일환이다. 첫 행사는 지난 5월 27일 암샘김밥 영등포역점에서 열렸다. 전남 새창



무쌈 사용 현판을 부착하고 완도 전북 매뉴를 포함해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영암 새창무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암샘김밥과의 협력이 전국 매장을 통한 새창무쌈 공급 확대와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 마케팅과 메뉴 개발을 통해 새창무쌈의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해남교육재단,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진로캠프

해남군 교육재단(이사장 명현관)은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교육대학교에서 '드림크래프트 진로캠프'를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해남교육재단이 추진하는 교육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총 21명의 학생이 참여해 인공지능(AI) 기반 직업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미래산업 분야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미래 진로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 '적성 이해', '셀프 리더십', '자기주도 1:1 코칭·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주도적인 학습 태도와 자기성장의 역할을 키웠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남교육재단과 해남군 가족센터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됐으며, 단순한 진로 탐



색을 넘어 청소년들이 삶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더욱 의미를 가졌다.

교육재단 관계자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주도 역량을 키운 값진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광주환경공단,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 기부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 제공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병수)은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되는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나섰다.

19일 공단 이사장실에서 열린 기부식에서 공단은 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사전 구매한 입장권 600장 중 218장을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된 입장권은 성인용 109장, 청소년용 109장으로 약 230만원 상당에 달한다.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소외계층과의 접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복지 프



그럼 운영 경험이 풍부해 이번 기부처로 선정됐다. 공단은 이번 기부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제약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과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세계적인 문화 축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같은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정보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사회교육활동 기부은행 동봉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

232-4953.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느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지매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은세 (음력 6월 27일)

48년생 말 실수가 우려된다
60년생 맑은 정전에서 처리해야 실수가 없다
72년생 근본 원인부터 찾아내야겠다
84년생 과도한 진급 욕심은 금물
96년생 도전해 가는 정신력을 만들 때

51년생 한말이 많으나 성과나 이익은 없다
63년생 작은 이익보다 긴 안목으로 보라
75년생 충도에서 포기하면 의미가 없다
87년생 확신하고 있다면 원칙을 고수하라
99년생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단합하라

54년생 유혹에 약한 마음 강하게 하라
66년생 지극하고 있는 일에만 전념하라
78년생 실수를 많이 하게 될 운
90년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라

57년생 지인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다
69년생 감당할 수 있는 일에만 가능하라
81년생 천방지축 행동하니 눈총 받는 날
93년생 계획대로 진행하면 탄탄대로

49년생 시원하게 해결되는 후련함이 보인다
61년생 단원하게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3년생 소원하던 일이 이뤄진다
85년생 쉬운 일이라도 덤비지 말라
97년생 주변을 둘러봐도 힘든 일만 있다

52년생 문서가 들어오니 조바심은 버리라
64년생 고생을 모르는 사람은 낙도 없다
76년생 지나침이 없이 정도를 지키라
88년생 하나 들어오고 둘 나간다

55년생 귀인을 만나 생기를 찾을 운세
67년생 흐트러진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
79년생 인과 관계의 핵심적 실마리를 찾는다
91년생 무언가 답답한 일이 해결된다

58년생 못하지 않던 금전 지출 된다
70년생 인심 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쉽다
82년생 효과는 점진적으로 드러날 것
94년생 청실 흥실 매어 놓은 연분 있는 날

50년생 금전 앞세우면 낭패를 본다
62년생 주변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길 것
74년생 모든 일이 귀와 계획대로 된다
86년생 알지 못하면 나서지 말라
98년생 연인하고 이별의 암시가 있다

53년생 지금하고 있는 근심은 해결된다
65년생 안경 곡면으로 재편되리라
77년생 때를 기다리는 동안 휴식을 취하라
89년생 이상형 연인 들어와 가슴 설레는 날

56년생 내버려 두면 큰 일이 된다
68년생 아랫사람과 양보하고 다투지 말라
80년생 친구의 말은 무시해도 좋다
92년생 지금은 모아야 할 때다

59년생 무슨 일을 해도 술술 잘 풀릴 것
71년생 괴일에 넘어가지 말라
83년생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95년생 목표에 전망 밝다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